

율곡학의 동아시아 일상과 이상의 Glocal 연구^{*}

A Glocal Study of East Asian Everyday Life and Ideals in Yulgok Studies

유성선^{••}

국문요약 이 논문은 2025년 연구년 시작과 함께 문화지리사상적 'Glocal'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논자는 이 기회를 통해서 유학사상의 문화지리 사상적 'Glocal'을 연접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문화지리사상적 현장탐방 → 철학실천 → 전통의 현대적 해석 → 실천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논자는 율곡학의 동아시아 일상과 이상의 글로벌 연구를 통해 유교사상문화가 지닌 철학적·사회적 가치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유교사상문화를 문화지리사상적 시각에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으며, 현지 경험과 통찰이 연구 방향성과 실천적 활동에 기여할 수 있었다.

율곡학의 동아시아 지평은 학문적 포용성 및 개방성, 유불도교의 철학적 소통이다. 율곡의 일상과 이상의 시의성(時宜性)은 수기치인(修己治人) →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실현으로 준수해야 할 대상은 윤리강상이고, 그 개혁의 대상은 법 및 제도이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철학실천이다. 율곡학의 동아시아 'Glocal'을 한중일대만등을 답사하면서 논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Glocal'을 포괄하는 소통 및 연구협력이 요청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율곡학의 'Glocal'을 중심으로 한 한국학 및 율곡학을 연구할 수 있는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핵심어 율곡학, 동아시아, 일상과 이상, 문화지리사상, 글로벌, 철학실천

- 차례**
1. 서론
 2. 일상과 이상의 'Glocal'
 3. 율곡학의 문화지리사상적 'Glocal'
 4. 율곡학의 동아시아 'Glocal' 면면관 특성
 5. 의의와 전망

1. 서론

본 논문은 2025년 연구년 시작을 계기로 문화지리 사상적 'Glocal'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현재 과제 수행의 아젠다는 논자가 오랫동안 추진하고 설명해 온 'Glocal' 범주이다.¹ 이번 프로그램은 중국 절강성 소흥

• 이 논문은 2025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2025.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1 본 논문은 2025년 7월 9일 중국 廣西師範大學外國語學院에서開催된 第55回 韓中人文學會國際學術會議의 「東亞細亞 脫境界와 韓中聯隊」主題 중 企劃發表[特別發言]를 修整·補完하였음을 밝혀둔다. 論者は 東亞細亞 'Glocal'아젠다를 進行하는데 있어서 對象 國家는 韓中日과 臺灣이다. 2025年間 10餘次例 學術大會와 政策討論 및 踏査를 進行하면서 日本 大學과는 聯合 國際學術大會에서 儒學思想의 論義를 하였다. 다만 日本의 栗谷學 論議는 先行研究 等の 學術이 如前히 未盡함을 밝혀 둔다.

(샤오싱) 지역의 유교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² 안휘 성 황산의 유네스코 지정 남호서원 복원 자료조사와³ 구 화산 화성사의 등신불로 알려진 지장보살 김교각(金喬覺, 696~794) 스님의 행적⁴을 탐방할 수 있었다.⁵ 이는 동아시아 철학 및 문화의 역사적·지리적 ‘Glocal’ 연관성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⁶ 또한 논자는 대만의 보인대학⁷과 대만 대동대학을 탐방하여⁸ 유학사상의 문화지리사상적 ‘Glocal’을 연결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문화지리사상적 현장탐방 → 실천철학 → 전통의 현대적 해석 → 실천모델

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⁹

2025년 1월부터 논자는 절강성 소흥 지역을 탐방하며 유교 사상가들의 유적지와 전통 건축물을 답사하고, 중국 유교문화의 현대적 의미를 탐독하는 기회를 가졌다.¹⁰ 특히, 중국 절강월수외국어대학교 동방언어학원과 국제학술 공동 세미나에서는 절강성 소흥의 유교문화가 지닌 철학적·사회적 가치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다. 이것은, 절강성 소흥은 유교사상문화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독특한 문화적 공간으로, 이번 답사는 유교사상문화의 본질과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학문후속세대인 연구팀에게 동아시아 철학의 실천적 가능성을 발견하는 발판을 제공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은 유교문화를 문화지리사상적 시각에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으며, 현지 경험과 통찰이 교육연구팀의 연구 방향성과 실천적 활동을 한층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강원대학교 철학실천연구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절강월수외국어대학교 동방언어학원과 학문적 교류를 강화하며, 철학적 유산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발견했다. 앞으로도 동아시아 철학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고 다양한 학문적·교육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¹¹

2025년 3월 6일 제1회 한·중·일 국제 공동 연구 협약과 국제학술세미나는 철학, 문화, 언어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 연구 협력과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2 論者は 江原大學校 哲學實踐研究所長, 安徽財經大學, 浙江越秀外國語大學 客座教授(碩座教授)로 2025년 1월 1일부터 中國 浙江 越秀外國語大學校 東方語言學院, 中國 安徽財經大學 韓國學研究所에서 「文化地理思想的 觀點에서 본 中國 儒敎文化 ‘Glocal’ 프로그램」을 開催했다. 浙江省 紹興地域은 儒敎思想文化의 根幹이 되는 儒學者 및 儒學資料 集成地域으로 書聖 逸少 王羲之(303~361)의 故郷으로 戴山 南岳 기슭의 古代 住居 地域이다. 書聖故里 風景區에는 王羲之陳列館, 珠講寺, 戴山書院, 三槐堂[尚德當舖], 子民 蔡元培(1868~1940) 故居, 題扇橋, 探花台門 등이 있다. 陽明學의 發祥地인 知行合一의 實踐者인 伯安 王陽明(1472~1529) 故居가 있으며, 明代 末期의 儒學者 戴山 劉宗周(1578~1645)는 그의 弟子인 梨州 黃宗羲(1610~1695)는 明末 清初의 傑出한 儒學者로, 紹興 等地에서 明나라에 대한 節概를 지키며 學問에 專念한 海內三大鴻儒 중 한 명이다. 近代의 儒敎 批判의 中心人物인 中國 近代 文學의 아버지인 魯迅(1881~1936) 故里가 있다. 古代 儒敎 思想文化의 源流인 기슭에 위치한 大禹陵은 古代 儒敎에서 聖君으로 推仰받는 文命 禹王(紀元前 2123年~紀元前2025年)의 墓所이다.

3 2025年 07月 17日~2025年 07月 21日. “中國 安徽省 黃山市 宏村에 位置한 南湖書院은 1814年 淸나라 時代에 南湖 北쪽에 세워진 傳統 書院이다.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에 登載되어 있으며 이곳은 6個의 書堂을 합쳐 만든 곳으로, 現在도 活潑한 生活의 根據地로 利用되고 있다.”

4 金勳, 「中國의 地藏信仰과 金喬覺 法師」, 『佛敎研究』 28, 韓國佛敎研究院, 2008, 103~128쪽; 김진무, 「中國 地藏信仰의 淵源과 金地藏」, 『淨土學研究』 15, 韓國淨土學會, 2011, 77~103쪽 參照.

5 2026年 01月 11日~2025年 01月 15日. 장성재, 「九華山 金地藏의 新羅 茶 論證」, 『宗敎教育學研究』 66, 韓國宗敎教育學會, 2021, 1~14, 參照.“金喬覺 스님은 新羅 王族 出身으로, 中國 佛敎에서 地藏菩薩의 化身으로 推仰받는 聖者이다. 金喬覺 스님의 修養과 德行으로 九華山은 中國 佛敎의 4代 名山 中 하나인 地藏菩薩의 聖地가 되었다. 新羅에서 차, 씨앗 및 버 등을 가져가 中國에 傳했다는 記錄이 있어, 宗敎뿐만 아니라 文化 交流 側面에서도 重要한 人物이다.”

6 2025年 中國 安徽省 安徽財經大學 人文大學과 浙江越秀外國語大學 東方語言學院에서 論者의 學術討論 協力を 위하여 碩座教授(客座教授)로 任命하여 資料調査를 容易하게 進行할 수 있었다.

7 2025年 04月 25日~2025年 04月 28日.

8 2025年 11月 16日~2025年 11月 18日.

9 本 研究課題와 關聯하여 論者は 臺灣 輔仁大學 및 臺東大學의 『歐亞連結－歐亞文化交流』 講座科程에서 「全球化与共同体的未來精神－谋求幸福的全球本土化精神」이라는 主題로 政策 및 討論을 進行하였다. 이것은 ‘栗谷學의 東亞細亞 Glocal 實踐研究’에 초점을 맞추었다.

10 2025年 01月 01日~2025年 01月 06日; 2025年 01月 05日~2025年 03月 08日; 2025年 09月 25日~2025年 09月 28日.

11 「江原大學校 哲學實踐研究所, ‘文化地理學的 觀點에서 본 中國 浙江 샤오싱의 儒敎文化’ 프로그램 開催」, 『韓國講師新聞』, 2025.1.15 參照. 이번 프로그램은 研究팀의 박종숙, 고복식, 이태영 研究員이 深層 踏査를 함께 進行하였음을 밝혀 둔다.

자 체결됐다. 이를 통해 3기관은 앞으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은 물론 정기적인 세미나와 워크숍, 국제 학술 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학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¹² 이번 협약으로 연구소의 철학적 연구 역량을 국제 무대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3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문 발전과 문화적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 협력으로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이번 협약이 국제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¹³

본 논의의 글로벌인 전통의 현대적 해석인 율곡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명나라의 쇠퇴와 일본의 전국시대 종결 및 팽창 조짐이 있었고, 여진족의 성장 등 동아시아적 위기의 전조기였다. 당시 율곡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견지하면서도 현실적인 국가의 위기를 직시했다. 이 일분수(理一分殊)의 외교적 적용은 천하의 도리는 하나지만, 각 국가는 처한 상황과 기(氣)가 다르다는 논리이다. 이는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조선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 개혁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¹⁴ 또한 존주양이(尊周攘夷)는 도덕적 가치로서의 중화는 존중하되, 오랑캐나 외세의 침략에는 실질적인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론으로 율곡은 명나라를 예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선의 자강(自強)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예를들면 조공 외교의 합리화로 명분론에 치우치지

보다 외교적 안정 속에서 내실을 기하는 실용적 사대를 지향했으며, 종계변무(宗系辨誣)로 조선 왕실의 혈통에 대한 명나라 기록의 오류를 바로잡으려 노력하며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했다.¹⁵ 율곡의 동아시아 인식에서 가장 돋보이는 지점은 일본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율곡은 통신사들의 보고와 정세를 분석하여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십만양병설(十萬養兵說)로 동아시아적 전란에 대비해 상비군을 기를 것을 주장했다.¹⁶ 이는 도덕적 교화만으로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적 안보관의 발현이다.

2. 일상과 이상의 'Glocal'

지금은 바야흐로 AI~AX 메타 초연결 시대의 IT와 역노화¹⁷의 의료바이오, 양자역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기이다. 논자는 인문학자이자 한국철학자로서의 소명의식은 율곡학의 'Glocal'이 주체가 되어 AI~AX 메타 및 생성형 AI~AX 시대, 빅데이터, 역노화 의료바이오, 양자역학 등의 초연결 시대를 통한 학술적 가치 및 정신사 구축에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실 모든 논의의 근거와 함의는 'Glocal'이다. 또한 학술계에서 공론이 되고 있는 ChatGPT, Gemini, Claude, Copilot, DeepSeek, Doubao 등은 순기능 및 역기능의 생성형 AI~AX로 그 기능을 확산중이다. 아울러 논자는 다문화사회 정책과 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제, 강원대 철학과 BK21+4 사업,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강원도 유

12 2026年 8月 28日 21回 韓·中·日 國際 共同 研究 協約과 國際 學術세미나는 “東亞細亞 文名과 對話”의 主題로 高麗大學校 글로벌研究院에서 開催된다. 論者의 主題發表는 「多石 柳永模(柳永模, 1890~1981)의 勞動論: 靑少年 教育과 哲學實踐의 含意 摸索」이다.

13 「江原大學校 哲學實踐研究所, 「韓·中·日 國際 共同 研究」 協約 締結」, 『Spotlight』, 2025.3.11 參照; 「江原大學校 哲學實踐研究所, 「韓·中·日 國際 共同 研究」 協約 締結」, 『韓國講師新聞』, 2025.3.12 參照.

14 洪軍, 「理氣一物論과 「理氣之妙說」一整庵과 栗谷의 理氣論 比較」, 『栗谷學研究』 31, (社)栗谷學會, 2015, 43~65쪽 參照.

15 이경동, 「16世紀 明使 接待의 形態와 實狀: 1582年 栗谷 李珥의 遠接使·伴送使 活動을 中心으로」, 『歷史研究』 39, 歷史學研究所, 2020, 141~173쪽 參照.

16 손흥철, 「君子의 길과 栗谷 李珥의 삶: 『戴禮管見』을 中心으로」, 『栗谷學研究』 51, (社)栗谷研究院, 2023, 5~37쪽; 張淑必, 「栗谷의 十萬養兵說에 對한 小考」, 『栗谷學報』 13, (社)栗谷研究院, 1999, 163~187쪽 參照.

17 세르게이 영, 이진구譯, 『逆老花』, 더퀘스트, 2023 參照.

학사상 자료집성 ‘Glocal’ 플랫폼 연구, 해외 한국학 연구에서 ‘Glocal’을 화두로 일관되게 다룰 수 있었다.^{18 19} 지난 정부의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Glocal 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있었으며, 현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안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2026년 본격 가동중이다. 또한 지방거점국립대에 AI~AX 메타에 관한 연구원과 대학원이 잇따라 신설되고 있다. 정책의 핵심 목표가 ‘산학협력 기반 특성화연구대학’ 육성인 만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분야인 AI~AX 메타 연구 역량을 확장하겠다는 취지이다.

논자는, AI~AX 메타 초연결 시대에 AI는 인간의 온전한 창안물이며, 인공지능 AI에 대한 윤리적 기준 또한 사람의 판단 몫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논자의 진단은 인공지능 AI가 내린 선택적 판단은 어디까지나 참고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다. 논자가 본 논문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생성형 AI~AX와 공존하거나 조절·통제는 사람만이 판단가능하다. 이것은 동양철학의 방법론을 수용한다면, 공자의 ‘인(仁)’ 실천과 맹자의 ‘사단지심(四端之心)’의 ‘확이충지(擴而充之)’ 인성론, 퇴계 이황의 ‘리발(理發)’, 율곡 이이의 ‘기발(氣發)’, ‘교기질(矯氣質)’ 범주 등은 우리에게 효율적인 인성방법이자 AI~AX 메타 생성형 시대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다. 이와 같은 덕목은 유학자들이 실천한 수양공부와 선비정신 등으로 제시되고 실천되었다. 특히 공맹이 강조한 인성론의 ‘역지사지(易地思之)’, ‘사단지심(四端之心)’, ‘견리사의(見利思義)’ 등은 AI~AX 메타 초연결 생성형 시대에 인성교육의 방법론이라고 제안하는 바이다.²⁰ 사실 성리학적 세계관에서의 우주의 만물은 리(理)와 기(氣)로 구성되는데, AI~AX

알고리즘과 가상 현실 역시 현대적으로 확장된 거대한 기(氣)의 장(場)으로 보아야 한다. 율곡의 교기질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을 수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과 기운을 맑게 정화하는 과정을 포괄하는데, AI~AX 알고리즘에 윤리적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과정 자체를 전통의 현대적 해석인 교기질의 시스템적 실천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3. 율곡학의 문화지리사상적 ‘Glocal’

‘문화지리사상’ 범주는 논자가 Footwork[Legwork]의 실천 강령으로 접근한 용어이다. 율곡의 학문과 영향은 절대적이며, 율곡학은 개방적 학풍과 더불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무실(務實)’을 지향한다. 이 계승과 창신은 21세기 율곡학의 연구 성과로 이어져 ‘Glocal’로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한국학 및 율곡학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학 및 유학사상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Glocal’ 상의 한국학 및 율곡학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소통 및 협력으로 다소의 진전을 보인다. 유학의 본령은 실학(實學)이자 지행합일(知行合一)에 있다. 텍스트 내부에만 갇힌 사유는 죽은 학문으로 유교 사상이 태동한 현장을 직접 밟고, 그 공간의 현대적 기운[氣]을 읽어내는 현장 탐방[Legwork]이야말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현대적 실천이다. 따라서 답사 기록은 단순한 행정 보고가 아니라, 공간의 기질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필수적인 관찰 데이터이다.

율곡 이이의 사상은 성리학적 원칙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당시 동아시아에서 조선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냉철하게 분석한 현실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 율곡의 이통기국(理通氣局)론은 문화지리 사상의 철학적 기초가 된다.²¹ 즉, 이통(理通)은 도덕적 가치

18 俞成善, 「栗谷學의 글로벌 展望 및 構築 研究」, 『韓國思想과 文化』, 韓國思想文化學會, 2021, 220~242쪽 再引用.

19 홍순권, 「글로벌리즘과 地域文化研究」, 『石堂論叢』 46, 東亞大學校 石堂學術院, 2010, 1~17쪽 參照.

20 俞成善, 「4次 産業革命 AI時代 人性教育의 方法과 展望」, 『韓中人文學研究』 60, 韓中人文學會, 2018, 33~48쪽 參照.

21 俞成善, 「栗谷 李珥의 修養工夫論」, 國學資料院, 2002; 서원혁, 「栗

와 문명적 원리는 동아시아 전체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기국(氣局)은 각 나라의 풍토, 지리, 역사적 조건(氣)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중국의 제도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기적(氣的) 특수성에 맞는 통치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²² 당시 율곡은 명나라라는 특정 공간을 중화와 동일시하지 않았다. 도덕적 중화주의에서 중화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예악(禮樂)과 도덕이 구현된 상태를 의미한다. 조선이 스스로를 개혁하여 도덕적 수준을 높인다면 지리적으로는 변방일지라도 문화적으로는 중화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자주적 문명 의식을 가졌다. 율곡은 조선이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겪는 지정학적 위기를 매우 민감하게 포착했다. 즉 북방[육로]의 경계는 여진족의 발흥을 예견하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방어 체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남방[해로]의 경계는 일본의 정세 변화를 주시하며, 바다를 건너올 침략에 대비한 십만양병설을 제안했다. 이는 조선의 지리를 동아시아 전란의 통로로 인식한 통찰이다. 율곡은 중국의 향약을 그대로 들여오는 대신, 조선의 마을 공동체 실정에 맞게 수정했다.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간 지역과 평야 지역의 풍속 차이를 인정하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치 규범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 지리적 접근으로 사창(社倉) 제도를 통해 지역 내 곡물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지리적 고립으로 인한 기근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율곡의 지정학적 자강론(自強論)은 조선이 반도적 숙명을 극복하여 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외교가 아니라, 내부의 힘을 길러[경장] 지리적 약점을 문화적·군사적 강점으로 전환하려 했다. 또한 실용적 세계 시민 의식으로 보편적 가치[理]를 추구하면서도 자기 발을 딛고 있는 땅[氣]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현실 기반

의 세계관을 제시하였다. 율곡은 보편적 문명론[理]을 조선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공간[氣] 속에 어떻게 토착화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다. 율곡은 조선을 명나라의 부속물이 아닌, 동아시아 질서 속의 당당한 주체로 인식하였다. 율곡의 이통기국 사상 자체는 이미 완벽한 글로컬 구조를 내포하고 있음을 논증할 수 있다. 보편적 진리와 도덕 규범인 리(理)는 시공간을 초월해 통(通)하지만, 그것이 구현되는 물리적·역사적 조건인 기(氣)는 각 국가와 지역마다 국한(局)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의 특수한 풍토[로컬] 위에서 보편적 중화의 가치[글로벌]를 실현하려 한 율곡의 기획은, 사용된 용어만 다를 뿐 현대적 의미의 글로컬 사상과 구조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자 정치가인 율곡 이이는 흔히 성리학적 이기론의 대가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사상 속에는 지리적 환경과 인간의 삶,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이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문화지리사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핵심 특징을 보인다. 인문지리적 환경론으로 ‘인결(人傑)은 지령(地靈)이다.’ 율곡은 땅의 기운[地氣]이 그 지역 사람들의 기질과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는 향토적 특성을 중시하여 각 지역의 산천과 기후가 사람들의 풍속을 결정하며, 정치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화의 변수로 지리적 조건이 험한 곳과 평탄한 곳의 백성들은 기질이 다르므로, 교육과 행정 또한 그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율곡은 향약(鄉約)을 통한 자치 공동체 구축으로 율곡의 문화 지리사상이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된 지점이 바로 향약이다. 그는 해주향약, 서원향약 등을 제정하며 특정 공간[지역]을 기반으로 한 도덕적 공동체를 제시하였다.²³

谷 理通氣局의 影響 考察, 『東西哲學研究』 85, 韓國東西哲學會, 2017, 83~100쪽 參照.

22 이영자, 「湖洛論爭에 있어서 栗谷 理通氣局說의 影響」, 『東西哲學研究』 41, 韓國東西哲學會, 2006, 165~189쪽; 黃義東, 「栗谷哲學의 現代의 意味: 理氣之妙를 中心으로」, 『栗谷學研究』 10, (社)栗谷研究院, 2005, 5~21쪽 參照.

23 이연시·俞成善, 「栗谷의 鄉約 實踐과 共同體主義에 對한 考察: 中國 鄉約과의 關係性을 中心으로」, 『東西哲學研究』 114, 韓國東西哲學

그는 생활 공간의 질서화를 통하여 단순히 도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마을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서로 돕고[환난상휼], 예절을 지키는[예속상교]의 구체적인 문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²⁴ 율곡은 관념적인 유학자에 머물지 않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적 자생력을 강조했다. 즉, 안민(安民)을 위한 지리로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려면 토지 제도가 바로 서야 하며, 각 지역의 특산물과 자원을 고려한 조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시무6조(時務六條)」는 그가 제안한 개혁안들은 당시 조선의 지리적·경제적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한 결과물로, 국토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²⁵ 율곡의 문화지리사상은 땅과 인간은 분리될 수 없으며, 훌륭한 정치는 그 땅의 특성과 사람의 기질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강원대학교 철학과는 일상과 이상의 다양한 문제를 소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4CP Paradigm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²⁶ 또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인 강원도 유학사상 자료집성 글로벌 플랫폼 연구·서원·향교의 유풍(儒風)을 6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논자가 안휘재경대학 인문대학에서 보임한 석좌(객좌)교수로서 활동하며 황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남호서원의 비교연구와 강원도 최초 사액서원인 문암서원의 복원과 유네스코 등재에 답사와 연구를 진행 중이다.²⁷

율곡학의 'Glocal'이 구축되려면 연구진작의 확장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논자는 2025년 1월 중국 절강성 소흥지역의 탐방을 통해서 왕양명과 유종주의 사상을 접근할 수 있었다.²⁸ 본 연구논문은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 율곡 이이와 거의 동시대 인물로서 중국 명대 때 활약한 즈산²⁹의 유학사상을 '성학도통론'의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출생연도로 보면 즈산은 율곡이 태어나고 42년 뒤에 태어나는데, 율곡이 조선 땅에서 세상을 떠나기 6년 전에 즈산은 중국 절강성 소흥에서 출생한 것이다. 동아시아 전체 유교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서 볼 때, 율곡은 퇴계 이황과 더불어 조선 유학을 대표하는 유학자이고, 즈산 유종주는 명말청초의 대표적 학자 황종희의 스승이자 중국 유교사상사에서 송명유학의 대미를 장식하는 명대 말기의 대유학자이다. 따라서 이 두 학자의 유교사상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학술적으로 향후 일정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³⁰ 향후 율곡학을 연구하는 전문학자는 한중 유학사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율곡의 『성학집요』와 즈산의 『성학중요』의 연구는

28 中國 浙江省 紹興은 儒學者 班列의 人物들이 豊富하다. 中國 最初의 治山治水로 名聲을 날린 會稽山의 禹임금 陵이 있으며, '蘭亭序'로 名筆인 王羲之의 故郷과 記念館이 있다. 또한 陽明學의 大家인 王陽明의 故郷과 記念館이 있으며, 그를 따른 戴山 劉宗周의 戴山書院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明夷待訪錄』으로 儒學을 總結한 大學者 黃鍾禧의 墓域과 故郷이 자리하고 있다. 2025年 1月 黃鍾禧의 故郷과 墓域을 踏査한 結果 텍시로 3時間 以上 逍遙된다. 또한 그의 墓域은 窮僻한 곳이라 나무로 우거져 있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나무뿌리로 덮인 黃鍾禧 父親의 墓域을 發見하였고, 그 事實을 管理者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紹興에는 近代文學의 大文學家인 魯迅의 故郷과 記念館이 位置하고 있다.

29 戴山 劉宗周(1578~1645)를 말함. 以下 栗谷 李珥와 戴山 劉宗周는 각각 栗谷과 戴山으로 略稱함.

30 辛炫承, 『明代 末期 劉宗周와 知識人 네트워크』, 솔과학, 2020./ 辛炫承, 『明代 末期 劉宗周와 東林黨事件에 觀한 一考察』, 『東亞世亞古代學』 57, 東亞世亞古代學會, 2020 參照. "劉宗周와 戴山學派弟子들은 中國 明代 末期라는 混亂期에 살면서 學術 門人集團으로서 知識人 네트워크를 形成하고 폭넓은 學問 交流를 圖謀하였다. 勿論 거기에는 地域 言論을 代辦하는 政治的 言說과 社會的 로컬 엘리트로서의 役割이 內包되어 있었다. 또한 修己治人이라는 新儒學의 슬로건은 그들에게 삶과 學問의 窮極의 指標를 賦與하였다. 끊임없는 自己修養을 바탕으로 儒敎 知識人이 나아가야 할 方向을 그들은 여기에서 찾았다."

會, 2024, 89~109 參照.

24 俞成善, 「栗谷 鄉約에 나타난 社會思想 研究」, 『哲學探究』 18, 中央大學校 中央哲學研究所, 2005, 5~28쪽 參照.

25 최용기, 「朝鮮의 國家哲學(1392~1910)」, 『憲法學研究』 11, 韓國憲法學會, 2005, 205~233쪽 參照.

26 4C는 BK21+事業 結果를 더욱 深度있게 하는 '日常의 恢復' 實踐-場인 Class, Cafe, Camp와 '異常의 修理'의 實踐-場인 Clinic으로 構成된다.

27 現在 研究進行中인 江原道特別自治道の 最初 賜額書院인 春川市 文巖書院의 復元과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 登載 事業은 安徽省 黃山의 南湖書院과의 比較面面을 통해서 研究振作中임을 밝혀둔다. 踏査資料照査中인 黃山의 南湖書院은 現在까지 住民들이 鄉里에서 生活圈을 가지고 있는데 反해서 文巖書院은 毀撤 以後 場所만 남아있는 狀態로 復元이 要請된다.

커다란 특수성이 있는 연구라고 제안하는 바이다.³¹

4. 율곡학의 동아시아 'Glocal' 의의와 전망

기존 동아시아 유교사상 분야에서 율곡과 죽산은 각각 한국과 중국[대만 포함]에서 독자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주로 개별인물과 그 인물의 철학과 사상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율곡학은 퇴계학과 더불어 한국의 전통 유교사상 내지는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유학자로 평가되고 있다.³² 또한 죽산은 일찍부터 송명유학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유학자로서 대만[중국]과 일본에서 주목하기 시작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제는 상당 수준으로 그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다만 국내에서의 죽산학 연구는 개별 연구자에 의해 개별적인 논문 몇 편이 있을 뿐이며, 아직도 죽산학 연구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최근 신현승 교수에 의해 2권의 죽산학 관련 전문 서적³³이 출판되어 향후 국내 죽산학 연구의 활발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렇듯 율곡과 죽산은 각각 자국에서의 연구 현황 및 유교사상사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동시대를 각기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두 인물에 관하여 비교·검토한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본자는 2026년 5월 16~17일간 중국 하북성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와 공동개최한 국제학술세미나 『한중

양명학과 동아시아 유학 및 양명학 청년학자 학술포럼』에서 「글로벌 사상으로서의 양명학: 죽산(戴山)의 장소성과 문화지리학적 함의」의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발표는 양명학을 단순한 철학 사조가 아니라 지역성과 세계성이 교차하는 '글로벌(global)' 범주로 규정하고, 이를 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절강성 소흥(紹興) 지역의 죽산 유종주를 중심으로, 양명학이 특정한 장소에서 형성되면서도 어떻게 초지역적·보편적 사상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기존 양명학 연구는 주로 왕양명의 철학 체계, 즉 심즉리(心即理), 지행합일(知行合一), 치양지(致良知) 등의 개념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사상이 형성되고 실천되는 공간적 맥락과 지역적 기반을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지리학의 '장소성'과 '공간적 실천' 개념, 그리고 글로벌리티(globality)의 관점을 결합하여 양명학을 재해석하였다. 글로벌은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이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양명학의 형성과 확산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샤오싱(紹興)은 역사적으로 교육과 문화가 발달한 지역으로, 양명학이 태동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토양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죽산(戴山)은 단순한 자연 지형을 넘어 양명학의 실천과 전승이 이루어진 핵심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죽산(戴山)은 산이라는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강학, 수양,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었으며, 이로 인해 사상과 실천이 결합된 '장소적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죽산(戴山)은 3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지역적 차원에서 죽산은 양명학의 실천적 기반을 형성하는 장소였다. 산이라는 물리적 환경은 외부와의 일정한 거리감을 제공하며 내면 성찰과 도덕적 수양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이곳은 제

31 現在 戴山 劉宗周 研究는 中國 浙江越秀外國語大學의 辛炫承 教授의 卓越한 業績이 있으며, 栗谷과 戴山을 比較研究하기 始作한 江原大學校 哲學科 이연시 研究院이 있다. 이연시, 「栗谷과 戴山の 聖學道統論 比較研究」, 江原大學校 一般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24.

32 황금중, 「退溪와 栗谷의 工夫論 比較 研究: 『聖學十圖』와 『聖學輯要』를 中心으로」, 『韓國教育史學』 25, 韓國教育史學會, 2003, 203~233 參照.

33 2020년과 2021년 國內에서는 辛炫承 教授에 의해 戴山學 關聯 2卷의 單行本이 連屬으로 出刊되었다. 『明代 末期 劉宗周와 知識人 네트워크』(솔과학, 2020), 『戴山學과 宋明儒學』(솔과학, 2021)이 그것이다.

자들과의 강학이 이루어지는 교육 공간으로서, 공동체적 실천이 축적되는 장소였다.

둘째, 네트워크 차원에서 줍산은 지역을 넘어서는 사상 교류의 거점으로 작동하였다. 양명학은 줍산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출발하였지만,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조선과 일본 등 동아시아로 전파되었다. 이 과정에서 줍산은 단순한 출발점이 아니라 정통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상징적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셋째, 상징적 차원에서 줍산은 기억과 재현의 공간으로 작동한다. 후대 학자들은 줍산을 방문하거나 기록함으로써 자신들의 학문적 정체성을 양명학 전통과 연결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는 장소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문화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특정 지역이 어떻게 보편적 의미를 획득하는지를 보여주는 글로컬화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줍산은 지역적 장소이면서 동시에 세계적 사상 형성의 거점으로 기능하는 ‘글로컬 공간’이다. 양명학은 이 공간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지만, 단순히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되며 확장되었다. 이는 사상이 특정 장소에 뿌리를 두면서도, 그 장소를 매개로 보다 넓은 세계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논자는 양명학을 ‘글로컬 사상’으로 재정립하고, 줍산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통해 사상과 공간, 지역과 세계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은 양명학 연구에 새로운 해석 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사상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 공간성과 글로컬리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율곡학의 동아시아 개방성과 다양성은, 19세에 모친을 여의고 향한 금강산에서의 불교수행 경험과 더불어 유학 이외의 도가(道家) 서적을 재구성한 저술인 『순언』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 책은 비책으로 『노자』 중 81장 중 40장을 유학지도[以儒釋老]의 순정(醇正)한 부분만

걸러서, 유학 체계에 따라 구결 및 해설을 붙였다. 율곡이 유학적 사유로 『노자』 81장 중 40장을 재구성한 『순언』은 크게 2가지 의의가 있다. 즉, 율곡의 학문적 다양성과 개방성, 도가와 유가의 철학적 소통[유도회통]이 그것이다.³⁴ 율곡의 일상과 이상의 시의성(時宜性)은 수기치인 → 내성외왕의 실현 방법으로 준수할 대상은 인륜(人倫)이며, 그 개혁할 대상은 법과 제도이다.³⁵ 논자는 율곡의 일상에 대한 철학실천적 수용성이 도덕규범의 가치 실천을 통한 사회적 선(善)의 철학실천이라고 본다.³⁶

『성학집요(聖學輯要)』는 율곡이 홍문관의 부제학 보임시 제왕의 학문으로서 그의 나이 40세(1575년) 되던 해에 저술한 정치철학서이다. 또한 율곡의 유교사상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표적 저작 중의 하나이다. 율곡의 나이 40세 때는 어린 선조 임금이 24세 때였다. 1567년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나이가 어림에도 돌연 왕위에 등극한다. 그러자 조정 내부에서는 구신(舊臣)과 외척을 내치고 재야의 인재들을 등용하려는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이 꿈틀대기 시작하였다. 율곡은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를 틈타서 선조가 현인(賢人)을 등용해서 성군(聖君)의 정치를 해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성학집요』를 지어서 선조에게 올렸던 것이다. 이는 일종의 군주학 교과서이기도 하였다.³⁷ 유교에서 군주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경전으로 『대학(大學)』 텍스트를 들 수 있다. 결국 율곡이 구상한 성학의 체계는 『대학』의 수기치인 이념

34 俞成善, 「『醇言』의 無爲境界-栗谷의 老子哲學 理解」, 『韓中人文學研究』 20, 韓中人文學會, 2007, 193~210쪽 參照./俞成善·李蘭淑 共譯, 「栗谷의 『醇言』: 儒學者의 老子 『道德經』 理解」, 景仁文化社, 2015 參照. “『醇言』의 體制는 本體論, 修養論, 經世論으로 作動된다. 第1章~第3章까지는 道의 本體論, 第4章~第25章까지는 修己治人으로 要約되는 修養論이고, 第26章~第40章까지는 經世論이다.”

35 이종성, 「큰길과 곁길: 栗谷 『醇言』의 最終 選擇支에 館하여」, 『大同哲學』 75, 大同哲學會, 2016, 71~95쪽 參照.

36 金泰姬·俞成善, 「『醇言』의 日常과 異常에 觀한 研究: ‘境界’의 範疇를 中心으로」, 『韓中人文學研究』 78, 韓中人文學會, 2023, 133~150쪽.

37 황정희, 「栗谷 『聖學輯要』를 活用한 指導者 哲學敎育」, 『儒學研究』 46, 忠南大學校 儒學研究所, 2019, 53~78 參照.

에 근거하여 재구성한 것이었다. 다만 ‘수기→정가→위정’이라는 체계에서 정가와 위정은 치인(治人)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치인 앞에 수기를 설정하여 수기가 근본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는 전형적인 주자학 측에서의 단계적 수양법에 따른 것이었다. 수기를 이룬 뒤 치인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순차적 단계가 주자학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이다.³⁸

성학(聖學)은 성인(聖人)의 학문 혹은 성인이 가르치고 성인이 되기 위해 배우는 학문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유학사에서 유학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에 절대적 권위성을 부여한 명칭이기도 하다. 맹자와 순자는 일반의 보통 사람이 자기 수양과 학문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단서를 원초적 사유방식이지만 최초로 제시한 인물들이다.³⁹

율곡의 수기(修己) 상의 최종 목표는 성인(聖人)의 경지이다.⁴⁰ 율곡은 수양공부를 통해 도덕적인 원만무결한 인간, 즉 성인(聖人)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의미한다. 율곡은 ‘교기질론’을 제시하면서 인간이 성인(聖人)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진실로 뜻이 서지 않았고, 이는 것이 밝지 않고 행실이 돈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⁴¹ 율곡은 ‘교기질적 수기’를 통해 미비한 기를 원래의 상태로 교정(矯正)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교정 기준은 ‘리’이다.⁴²

따라서 율곡의 성학이 포함하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서의 수기론(修己論)이다. 하지만 유학[혹은 유교]의 수기란 오륜(五倫)의 질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수기는 사회적 인격을 벗어날 수 없다. 여기에서 율곡은 신유학(新儒學)의 주요한 명제이자 관념인 ‘존천리(存天理), 거인욕(去人欲)’의 수기(修己)를 근거로 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실제적인 치효(治效)를 구할 수 있는 것까지 모두가 성학(聖學)의 범위로 포함시키게 된다.⁴³ 또한 이와 같이 성리학이란 수기를 근본으로 하여 정치, 사회적인 실천에 이르러야 함이 그 본령이라고 보아 특히 이 점을 강조할 때는 도학(道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를 좋아하였다. 즉 도학이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인격의 완성이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왕도(王道)의 실현이니, 그런 실제적인 공효(功效)가 있을 때 도학이 되는 것이다.⁴⁴ 따라서 율곡에게 유학은 도학이고, 도학은 성학이었다. 다만 율곡이 상정하는 이 성학은 『대학』의 수기치인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⁴⁵

조선 유학을 대표하는 퇴계는 물론이고 율곡 또한 이 『대학』 경전에 주목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주자학적 성학 체계를 완성하였다. 율곡의 『성학집요』 편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율곡이 『성학집요』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신의 이 저서는 주희의 재전 제자인 남송대 진덕수(眞德秀, 1178~1235)의 『대학연의』를 모본으로 하여 찬술했다고 고백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율곡의 이 책에 대해 『대학연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조선의 군주학을 정립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⁴⁶

특히 『성학집요』에서 강조하는 ‘변화기질(變化氣質)’ 및 ‘추성용현(推誠用賢)’의 2가지 개념은 성왕(혹은 제왕)의 학문과 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개념은 율곡의 수

38 권상우, 「『聖學輯要』의 聖王論: 『大學衍義』, 『聖學十圖』와 比較를 中心으로」, 『儒學研究』 46, 忠南大學校 儒學研究所, 2019, 53~78 參照.

39 이연시·俞成善, 「栗谷의 聖學論과 儒敎의 實踐哲學」, 『栗谷學研究』 64, (社)栗谷研究院, 2026, 37~65쪽 參照.

40 『栗谷全書』 1, 卷13, 「序」, 「別洪表叔序」, 267쪽 上, “修之則皆至於聖”.

41 『栗谷全書』 2, 卷27, 「擊蒙要訣」, 82쪽 下, “志不立, 知不明, 行不篤”.

42 俞成善, 「栗谷 『醇言』의 修養工夫論 研究」, 『栗谷學研究』 62, (社)栗谷學會, 2006, 19쪽 再引用.

43 홍석대, 「栗谷의 帝王敎育論과 實踐」, 『韓國敎育史學』 41, 韓國敎育史學會, 2019, 107~132 參照.

44 박성준, 「栗谷의 聖學體系에 觀한 研究」, 『栗谷思想研究』 3, (社)栗谷學會, 1997, 391~392쪽.

45 이연시·俞成善, 「栗谷의 聖學論과 儒敎의 實踐哲學」, 『栗谷學研究』 64, (社)栗谷研究院, 2026, 37~65쪽 參照.

46 정재훈, 「『聖學輯要』를 通해 본 朝鮮中期의 政治思想」, 『奎章閣』 22, 서울대 奎章閣 韓國學研究院, 1999, 94쪽.

기치인에 구체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⁴⁷ 율곡 인성론의 핵심은 ‘교기질론’이다. 따라서 율곡 수양공부론의 핵심은 ‘교기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율곡은, 결국 ‘리’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불완전하고 탁한 ‘기’를 맑고 순정한 ‘기’로 교정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라고 적시하고 있다.⁴⁸

율곡학이 제시하는 ‘자강적 공존’의 모델은 자주적 중화주의로 율곡에게 중화란 특정 국가[명]가 아니라 문명적 가치였다. 조선이 스스로를 개혁하여 문명국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체적인 중화의 실현이다. 즉, 현대적 의미로는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핵 위기 등 복잡한 현대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원칙[理]을 지키되 현실[氣]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율곡의 시의성(時宜性) 외교는 중요한 이정표이다. 율곡학의 동아시아 ‘Glocal’을 탐독하면서 논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Glocal’ 전체를 포섭하는 연구협력이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율곡학의 ‘Glocal’을 중심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제안하는 바이다.⁴⁹

따라서 본 논문은 ‘문화지리사상’이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율곡학의 동아시아 글로컬 확장성을 제시하고, 이론적 측면에서는 율곡의 『성학집요』와 『순언』을 분석하여, 유가적 정통성과 다른 사상에 대한 개방성을 동시에 고찰하였다. 또한 현대적 적용으로 율곡의 ‘기질변화’를 AI~AX 메타 초연결 시대의 인성교육 담론으로 연결하였다. AI를 기(氣)의 확장으로 해석한다면 알고리즘의 불변하는 연산 규칙을 리(理) 범주로, 축적된 데이터와 가변적인 산출 작용을 기(氣)로 세분화하여 대응시킨다

면, 인공지능 윤리를 통제하는 인간의 주체적 역할을 교기질의 실천 모델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철학실천 목표인 4CP 패러다임을 통한 대학 교육과 지역 사회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의의와 전망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47 박홍규·송재혁, 「『聖學輯要』進獻의 政治的 性格」, 『韓國哲學論集』 35, 韓國哲學史研究會, 2012, 208쪽.

48 俞成善, 「栗谷心論研究」, 中央大學校 一般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1, 13쪽 參照; 俞成善, 「栗谷『醇言』의 修養工夫論 研究」, 『栗谷學研究』 62, (社)栗谷學會, 2006, 18~19쪽 再引用.

49 염미경 외 6인, 「大學의 글로벌 教師 養成을 爲한 글로벌教育 시스템 開發 프로세스 研究」, 『글로벌文化콘텐츠』 17,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4, 103~122쪽 參照.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朱熹, 『四書章句集注』, 1987.
- 程頤·程顥, 『二程全書』.
- 成大大東同文化研究院, 『栗谷全書』 1.2, 1992.
- 民族文化推進會, 『韓國國文集叢刊』, 1992, 1-239권.
- (社)栗谷學會, 『栗谷學研究叢書(資料編)』(全10卷), 原榮出版社, 2007.
- (社)栗谷學會, 『栗谷學研究叢書(論文編)』(全10卷), 原榮出版社, 2007.
- 『CD-ROM 栗谷全集』, (社)栗谷學會, 2004.
- 戴瑋璋·吳光主編, 『劉宗周全集』(全六卷), 臺灣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1997.
- 黃宗羲著·沈芝盈點校, 『明儒學案』(上·下)二冊, 北京中華書局, 1985.

2. 단행본 및 논문

- 「江原大學校 哲學實踐研究所, '文化地理學的 觀點에서 본 中國 浙江 사오싱의 儒敎文化' 프로그램 開催」, 『韓國講師新聞』, 2025.1.15.
- 「江原大學校 哲學實踐研究所, '韓·中·日 國際 共同 研究' 協約 締結」, 『Spotlightu』, 2025.3.11.
- 高麗大 民族文化研究院員 韓國思想研究所 編, 『譯註와 解說 聖學十圖』, 藝文書院, 2009.
- 권상우, 「『聖學輯要』의 聖王論: 『大學衍義』, 『聖學十圖』와 比較를 中心으로」, 『儒學研究』 46, 忠南大學校 儒學研究所, 2019.
- 금장태, 『聖學十圖와 退溪哲學의 構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김진무, 「中國 地藏信仰의 淵源과 金地藏」, 『淨土學研究』 15, 韓國淨土學會, 2011.
- 金泰姬·俞成善, 「『醇言』의 日常과 異常에 觀한 研究: '境界'의 範疇를 中心으로」, 『韓中人文學研究』 78, 韓中人文學會, 2023.
- 金勳, 「中國의 地藏信仰과 金喬覺 法師」, 『佛教研究』 28, 韓國佛教研究院, 2008.
- 박성준, 「栗谷의 聖學體系에 關한 研究」, 『栗谷思想研究』 3, (社)栗谷學會, 1997.
- 박흥규·송재혁, 「『聖學輯要』 進獻의 政治의 性格」, 『韓國哲學論集』 35, 韓國哲學史研究會, 2012.
- 서원혁, 「栗谷 理通氣局의 影響 考察」, 『東西哲學研究』 85, 韓國東西哲學會, 2017.
- 손흥철, 「君子의 길과 栗谷 李珥의 삶: 『戴禮管見』을 中心으로」, 『栗谷學研究』 51, (社)栗谷研究院, 2023.
- 송석구, 『栗谷의 哲學思想研究』, 螢雪出版社, 1988.
- 辛炫承, 「明代 末期 劉宗周와 知識人 네트워크」, 솔과학, 2020.
- _____, 「明代 末期 劉宗周와 東林黨事件에 觀한 一考察」, 『東亞世亞古代學』 57, 東亞世亞古代學會, 2020.
- _____, 「蔣山學과 宋明儒學」, 솔과학, 2021.
- 염미경외 6人, 「大學의 글로벌 敎師 養成을 爲한 글로벌敎育 시스템 開發 프로세스 研究」, 『글로벌文化콘텐츠』 17,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4.
- 俞成善, 『栗谷 李珥의 修養工夫論』, 國學資料院, 2002.
- _____, 「栗谷의 憂患意識과 社會思想」, 『東西哲學研究』 35, 韓國東西哲學會, 2005.
- _____, 「『醇言』의 無爲境界: 栗谷의 老子哲學 理解」, 『韓中人文學研究』 20, 韓中人文學會, 2007.
- _____, 『栗谷 哲學의 理解』, 江原大 出版部, 2008.
- _____, 「栗谷 同居戒辭 含意 分析의 家族共同體 研究」, 『韓中人文學研究』 53, 韓中人文學會, 2016.
- _____, 「4次 産業革命 AI時代 人性敎育의 方法과 展望」, 『韓中人文學研究』 60, 韓中人文學會, 2018.

- _____, 「栗谷學의 글로벌 展望 및 構築 研究」, 『韓國思想과 文化』, 韓國思想文化學會, 2021.
- _____, 「栗谷 『醇言』의 修養工夫論 研究」, 『栗谷學研究』 62, (社)栗谷學會, 2025.
- _____, 「栗谷 鄉約에 나타난 社會思想 研究」, 『哲學探究』 18, 中央大學校 中央哲學研究所, 2005.
- 俞成善 外3人, 「韓中 儒學研究의 動向과 展望」, 『韓中人文學研究』 44, 韓中人文學會, 2014.
- 俞成善·劉貞恩, 『經筵日記』, 아르테, 2023.
- _____, 『擊蒙要訣』, 솔과학, 2023.
- 栗谷 李珥, 俞成善·李蘭淑譯, 『栗谷의 醇言-儒學者의 老子 道德經 理解』, 경인문화사, 2015.
- 이경동, 「16世紀 明使 接待의 形態와 實狀: 1582年 栗谷 李珥의 遠接使·伴送使 活動을 中心으로」, 『歷史研究』 39, 歷史學研究所, 2020.
- 이연시, 「栗谷과 蔣山의 聖學道統論 比較研究」, 江原大學校 一般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24.
- 이연시·俞成善, 「栗谷의 鄉約 實踐과 共同體主義에 對한 考察: 中國 鄉約과의 關係性을 中心으로」, 『東西哲學研究』 114, 韓國東西哲學會, 2024.
- 이연시·俞成善, 「栗谷의 聖學論과 儒敎의 實踐哲學」, 『栗谷學研究』 64, (社)栗谷研究院, 2026.
- 이영자, 「湖洛論爭에 있어서 栗谷 理通氣局說의 影響」, 『東西哲學研究』 41, 韓國東西哲學會, 2006.
- 이종성, 「큰길과 겹길: 栗谷 『醇言』의 最終 選擇支에 館하여」, 『大同哲學』 75, 大同哲學會, 2016.
- _____, 「栗谷의 『醇言』에 反影된 『聖學輯要』의 特性과 意義」, 『栗谷學研究』 39, (社)栗谷研究院, 2019.
- 장성재, 「九華山 金地藏의 新羅 茶 論爭」, 『宗教敎育學研究』 66, 韓國宗教敎育學會, 2021.
- 張淑必, 「栗谷 李珥의 聖學 研究」, 高麗大學校 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1.
- _____, 「栗谷의 十萬養兵說에 對한 小考」, 『栗谷學報』 13, (社)栗谷研究院, 1999.
- 정재훈, 「『聖學輯要』를 통해 본 朝鮮中期의 政治思想」, 『奎章閣』 22, 서울대奎章閣 韓國學研究院, 1999.
- 조영철, 「글로벌 多文化 社會 形成을 위한 相互文化敎育의 方向」, 『文化콘텐츠研究』 13, 建國大學校 글로벌文化戰略研究所, 2018.
- 최용기, 「朝鮮의 國家哲學(1392-1910)」, 『憲法學研究』(第11卷), 韓國憲法學會, 2005.
- 洪軍, 「理氣一物論과 理氣之妙說-整庵과 栗谷의 理氣論 比較」, 『栗谷學研究』 31, (社)栗谷學會, 2015.
- 홍식대, 「栗谷의 帝王敎育論과 實踐」, 『韓國敎育史學』 41, 韓國敎育史學會, 2019.
- 홍순권, 「글로벌리즘과 地域文化研究」, 『石幢論叢』 46, 東亞大學校 石幢學術院, 2010.
- 黃義東, 「栗谷思想의 體系의 理解 1,2」, 서광사, 1998.
- _____, 『栗谷哲學研究』, 경문사, 1987.
- _____, 「栗谷學의 繼承과 創新」, 『儒學研究』 23, 忠南大儒學研究所, 2010.
- _____, 「栗谷哲學의 現代의 意味: 理氣之妙를 中心으로」, 『栗谷學研究』 10, (社)栗谷研究院, 2005.
- 황금중, 「退溪와 栗谷의 工夫論 比較 研究: 『聖學十圖』와 『聖學輯要』를 中心으로」, 『韓國敎育史學』 25, 韓國敎育史學會, 2003.
- 황정희, 「栗谷 『聖學輯要』를 活用한 指導者 哲學敎育」, 『儒學研究』 46, 忠南大學校 儒學研究所, 2019.
- 황준연, 「栗谷哲學의 理解」, 서광사, 1995.

Abstract

A Glocal Study of East Asian Everyday Life and Ideals in Yulgok Studies

You, Sung-Seon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nitiates a study of the “Glocal” concept within the framework

of cultural geographical thought, commencing in the 2025 research year. This research opportunity allowed the author to effectively connect the cultural geography of Confucian thought with the “Glocal” perspective. The primary objective is to present a practical model for the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 of fieldwork-based philosophical practice in cultural geography. Through an examination of Yulgok’s perspective on East Asian everyday life and ideals within a glocal context, the author explores methodologies for reinterpreting the philosophical and social values inherent in Confucian thought and culture from a contemporary viewpoint. This approach significantly strengthens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Furthermore, this study introduces a novel perspective for investigating Confucian culture through the lens of cultural geography. The local experiences and insights garnered have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shaping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and practical activities.

The East Asian horizon of Yulgok studies is characterized by academic o

penness, inclusiveness, and the philosophical dialogue between Confucianism and Taoism. Yulgok’s emphasis on the timeliness of the everyday and the ideal serves as a practical means to achieve self-cultivation and the governance of others (修己治人), ultimately realizing the principle of “sageliness within and kingliness without” (內聖外王). In this framework, ethical teachings are the objects of adherence, while laws and institutions are the targets of reform.

In summary, this constitutes a form of philosophical practice. While exploring the East Asian “Glocal” dimensions of Yulgok studies, the author identified a pressing need for enhanced communication and research collaboration that encompasses the broader “Glocal” sphere, centere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Consequently, there is an urgent necessity to cultivate a new generation of scholars equipped to advance Korean studies and Yulgok studies with a specific focus on this “Glocal” paradigm.

Keywords Yulgok studies, East Asia, everyday life and ideals, cultural geographical thought, Glocal, philosophical practice